



3면

문 대통령, 여야 4당 대표들과  
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 논의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3월 2일 월요일 (음 2월 8일) 제2485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신천지 신도, 끝까지 찾을 것”

###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 회의

송하진 도지사, 신천지 측  
자료 신뢰 불가능 판단에  
도민 제보로 전수조사 강화  
정세균 총리에게도 건의

코로나19 확진환자 절반 이상이 신천지 대구교회 연관사례로 파악되는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도내 신천지 시설과 신도 파악 등 전수조사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정부에도 이같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달 2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회의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대본회의)'에서 "정부가 제공한 신천지 명단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황은 차이가 있다"며 "제공 명단과 현장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신천지 신도 명단과 추가 명단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며 "이를 토대로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신천지교회의 특성상 전수조사가 불가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신천지측이 밝힌 대구·경북 방문 신도 수, 도내 신천지 관련 시설 현황 등 신천지측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전북도는 정부로부터 신천지 신도 명단을 받은 이후인 지난 27일 오후 7시37분께 '시·군청에서 신천지 교인분들께는 063-280-2966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긴급재난문자 2건을 발송했다.

해당 긴급재난문자는 송하진 지사의 지시로 전북도가 법률 검토를 거쳐 발송을 전격 결정했다.

문자 발송 뒤 시민들의 제보 전화가 폭주해 전북도는 28일 오후 2시 현재 746명의 명단을 확보해 정부로부터 확



지난달 28일 전북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송하진 도지사가 중앙부처와 전북도 시장, 군수들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과 대조한 후 중복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증상 유무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명단에 기초해 도내 신천지 신도 56%가량을 유선 조사한 결과, 대구·경북을 방문했다고 밝힌 이들은 27명으로 나타나 신천지측이 기존에 밝힌 2명과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신천지는 지난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내 교회와 부속시설이 66곳이라고 밝혔지만 전북도 자체조사결과 추가 시설이 파악되는 등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조사를 통해 지난 25일 3곳, 26일 1곳을 확인했고, 지난 27일 5곳을 추가 확인해 현재까

지 파악된 도내 신천지 시설은 모두 72곳이다.

새로 파악된 신천지 시설은 전주 3개소, 익산 1개소, 정읍 1개소로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전북도는 강제폐쇄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송 지사는 "문자 제보와 관련해 신천지측의 혐의도 있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신천지가 있는 만큼 보다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한다"며 "제보 전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명단을 일일이 대조, 확인하면서 신천지 관련 유증상자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의 이같은 조치와 송하진 지사의 전국 확대 건의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 시도가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전북도에 요청했다.

정세균 총리는 "전북도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을 각 시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정리해달라"고 밝히며 추후 중대본회의에서 이를 논의키로 했다.

중대본회의에 이어 열린 도내 시장 군수 영상회의에서 송 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민은 감염병 조사와 검사에 절대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은 전시에 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듭된 연락에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거부하는 신천지 교인이 있다면 경찰의 협조를 얻어 강력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온라인상 유포 도내 신천지 명단과 아무 관계 없어”

### 공식 입수된 명단, 코로나19 예방업무에만 활용 즉시 폐기

전북도는 도내 온라인상 전북 지역 신천지 명단이라고 유포되고 있는 자료는 전북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도는 현재 코로나19 예방업무를 위

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전달받은 신천지 명단은 보안 약속서를 작성한 전담공무원에 한해서 관리 중이다.

도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입수된 명단을 코

로나19 방역 업무에만 활용하고 그 누구에게도 명단의 유무선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도는 공식적으로 입수된 명단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업무에만 활용하고 즉시 폐기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 社 告

##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전북 언론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분야	자격 조건
편집기자(경력·신입)	본사 0명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여·나이제한 없음
취재기자(경력·신입)	본사 0명	위와 동일

▲ 접수기간 2020년 3월 31일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 총무팀)

전주매일

### 김제 지평선일반산단·정읍 첨단과학일반산단

## 지방중기 특별지원지역 재지정

### 5년간 혜택... 산단 분양조건 완화와 병행 신규기업 유치 '탄력'

전북도는 3월 12일 종료되는 2개 산단(김제 지평선일반산단, 정읍첨단과학일반산단)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재지정돼 5년간 중소기업 특별지원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집적현황 및 산업생산실적이 저조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가 높은 지자체의 산단을 지정하고, 관로·세제·자금 등을 특례 지원해 기업유치 촉진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정하는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관로지원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등 자금지원과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D) 사업 등 대해서도 가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김제 지평선일반산단 82개소,

정읍 첨단과학산단 20개소의 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앞으로 특별지원지역 지정 혜택과 병행한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입주예정기업)지원 등을 통해 신규 기업 유치를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정읍=김태환 기자

### 전북도, 올해 농업용수 이용 배수시설 정비에 2023억 투입

전북도는 올해 가뭄과 폭우 등의 재해에 사전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2,023억원을 투입해 12개 사업 414지구의 농업용수 이용 및 배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도내 가뭄 및 폭우 등의 재해로 발생한 농경지 등의 피해는 17만7,676ha이다.

특히, 가뭄은 2016년에 폭우는 2012년에 피해가 가장 컸으며, 최근 10년간 도내 가뭄 및 폭우 등의 재해 복구비로 2,154억원이 투입됐다. /김진성 기자

무주군의회의 또 다른 이름

# 희망의회!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  
정치가는 다음세대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